

# 시멘트 輸出 이대로 좋은가

李 栽 馥

〈東洋세멘트常務理事〉

1977년도 10대전략수출상품의 대열에 올랐던 시멘트는 1978년 후반 국내수요의 급증에 따른 수출금지조치로 수출이 동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년 업계 생산능력의 1/4에 상당하는 연간 500여만톤의 물량이 83년도까지 해외로 실려나갔다. 금년들어 각국의 자급화정책과 세계경기의 회복부진에 따라 격감되는 해외수요와 기존경쟁국 및 동구권국가들의 Dumping 공세로 인하여 우리의 수출물량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가격 또한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하락하는 등 해외시장 여건은 惡化一路로 치닫고 있어 시멘트 수출은 심각한 국면에 直面하고 있다. 즉 83년도 수출량은 出荷基準 500만톤에 免狀基準금액으로 약 2億달러에 이르렀으나 금년 상반기실적은 약 175만톤에 62백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物量面에서 56%, 金額面에서 50%로 격감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해외시장의 價格競爭과 물량감소를 여실히 느끼게 한다.

수출의존형의 우리나라 경제운영에 있어 수출의 比重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론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과제이며 따라서 수출증대는 至上課題일 수밖에 없다.

그렇진대 시멘트수출시장의 급변에 어떻게 대응하고 시장을 維持하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 1. 과거의 輸出

1964년부터 시작된 시멘트수출은 비록 그 대부분이 價格面에서 出血輸出이었으나 업계의 가동을 유지와 品質向上 등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82년도기준 세계 제12위의 생산국으로 부상하고 수출물량면에서는 세계 제4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등 시멘트산업성장의 一翼을 擔當하였다.

다행히 장기간에 걸친 內需不況이 82년 후반을 고비로 점차 회복되어 國內出荷량이 증대되고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에 힘입어 당분간 內需가 안정 내지 成長勢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업계의 生産性向上 또는 시설의 개체 내지 확장과 內需市場의 장기적인 需給安定을 위해 시멘트수출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따라서 안정적인 輸出市場의 確保는 업계 전체의 중대한 과제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시멘트수출은 1964년의 對월남 2만톤을 嚆矢로 하여 1968년 싱가포르에 최초의 크린카를, 1969년에 인도네시아에 포장시멘트를 수출하였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져 동남아제국 및 中東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82년에 미국시장에, 그리고 83년에는 나이지리아 등으로 輸出市場의 範圍를 넓히게 되었다. 즉 輸入商品에서 輸出商品으로 轉換된 60年代 후반 이후 본격적인 수출은 이른바 中東熱風이 일어난 70년대 초반부터 그후 10여년간 꾸준히 우리나라 전체수출

의 一翼을 擔當하면서 많은 화제도 남겼다. 그리하여 81년에는 20년 수출사상 최대인 570만톤의 물량에 3億달러의 輸出實績을 實現하였고 세계 24개국에 수출의 길을 開拓하였던바 근래의 실적을 계수화하면 <表-1>, <表-2>와 같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년과 79년은 輸出規制로 부진하였으나 79년 하반기부터 景氣沈滯가 심각하여지면서 80년대의 시멘트수출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써 시멘트수출은 업계전체의 需給安定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재삼 부각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종래의 포장시멘트 위주에서 벌크시멘트와 크링카로 급속히 轉換되어가고 있

다. 특히 輸出市場의 價格競爭이 치열해지고 物量이 현저히 감소된 84년 上半期에는 벌크시멘트가 40%선을, 크링카가 50%선을 차지하여 포장시멘트 시장의 감퇴를 여실히 反映해 주고 있다.

한편 <表-2>를 보면 포장시멘트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主市場이고 벌크시멘트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中東지역이, 그리고 크링카는 싱가포르, 홍콩 등 東南아시아와 中東一部 국가가 大宗을 이루고 있다. 大別하여 中東과 인도·파키스탄시장으로 兩分되는바 中東은 自給의 時代로 박차를 加하고 있고 東南亞는 수출 여력 보유국화 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시멘트의 主원료인 石灰石이 세계

年度別 輸出實績

<表-1>

(단위 : 톤)

사별	품종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東洋	시멘트	996,468	268,289	157,523	472,695	895,723	939,560	552,555
	크링카	-	250,763	256,206	283,674	240,443	159,142	170,337
	계	996,468	519,052	413,729	756,369	1,136,166	1,098,702	722,892
雙龍	시멘트	1,439,365	539,200	167,180	917,413	930,036	1,013,204	1,118,499
	벌크	-	-	11,795	461,555	1,161,376	1,267,604	1,451,943
	크링카	567,908	565,224	980,033	1,812,005	2,289,947	1,862,029	1,179,661
계	2,007,273	1,104,424	1,159,008	3,190,973	4,381,359	4,142,839	3,750,103	
韓一	시멘트	361,288	85,438	38,130	156,270	47,225	124,310	194,620
	벌크	-	-	-	-	17,000	-	-
	계	361,288	85,438	38,130	156,270	64,225	124,310	194,620
現代	시멘트	118,911	27,470	20,000	34,000	30,650	16,857	55,367
	크링카	114,474	23,325	31,300	13,400	-	16,300	40,734
	계	233,385	50,795	51,300	47,400	30,650	33,157	96,101
亞細亞	시멘트	204,289	59,968	53,050	112,300	30,700	55,700	81,220
星信	시멘트	237,584	49,600	59,200	145,800	107,635	143,500	147,750
	크링카	-	-	-	-	-	-	59,626
	벌크	-	-	-	-	23,038	-	-
계	237,584	49,600	59,200	145,800	130,673	143,500	207,376	
合計	시멘트	3,357,905	1,029,965	495,083	1,838,478	2,041,969	2,293,131	2,150,011
	벌크	-	-	11,795	461,555	1,201,414	1,267,604	1,451,943
	크링카	682,382	839,312	1,267,539	2,109,079	2,530,390	2,037,471	1,450,358
	계	4,040,287	1,869,277	1,774,417	4,409,112	5,773,773	5,598,206	5,052,312

註 : 出荷基準

資料 : 시멘트統計年報

製品別, 年度別 / 大主要市場 (1980 - 83 年)

<表-2>

(단위 : 톤)

품종	연도 구분 순위	1980		1981		1982		1983	
		國名	數量	國名	數量	國名	數量	國名	數量
시멘트	①	인도	840,887	인도	842,048	인도	778,942	인도	1,129,968
	②	태국	423,640	파키스탄	245,100	파키스탄	514,980	파키스탄	247,080
	③	뱅글라데쉬	264,663	오만	240,926	인도네시아	197,132	뱅글라데쉬	240,900
	④	사우디아라비아	174,833	카타르	170,550	카타르	183,110	인도네시아	190,955
	⑤	인도네시아	70,400	이락	110,690	오만	156,800	말레이시아	121,100
	⑥	베팔	35,885	뱅글라데쉬	90,000	베팔	137,080	베팔	84,616
	⑦	아랍토후국	12,750	아랍토후국	88,585	이락	72,800	소말리아	43,000
벌크	①	사우디아라비아	267,660	사우디아라비아	930,288	사우디아라비아	1,163,721	사우디아라비아	1,030,674
	②	이락	139,076	이락	271,126	이락	55,500	예멘	178,270
	③	태국	39,889	-	-	미국	17,000	모리셔스	113,480
	④	홍콩	12,850	-	-	홍콩	15,136	미국	96,984
	⑤	일본	2,080	-	-	이집트	9,837	나이지리아	29,119
크림카	①	홍콩	773,653	홍콩	808,027	홍콩	555,453	싱가폴	603,688
	②	쿠웨이트	448,842	아랍토후국	667,200	싱가폴	332,007	홍콩	266,871
	③	싱가폴	376,877	쿠웨이트	400,592	바레인	298,402	아랍토후국	233,077
	④	아랍토후국	278,607	싱가폴	328,412	쿠웨이트	291,982	바레인	156,250
	⑤	뱅글라데쉬	113,836	바레인	141,296	아랍토후국	210,053	뱅글라데쉬	100,900
	⑥	말레이시아	59,363	뱅글라데쉬	139,001	이락	150,777	말레이시아	89,572
	⑦	사우디아라비아	57,901	말레이시아	45,862	뱅글라데쉬	99,411	-	-

註 : 出荷基準

資料 : 시멘트統計年報

어느 곳에서나 매장되어 있는 鑛物인 것임을 어찌하라.

## 2. 오늘의 輸出市場

시멘트업계의 종합적인 狀況을 알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시멘트산업의 특수성을 吟味할 필요가 있다. 이 특수성을 간추려 보면

① 대표적인 裝置産業으로서 資本集約도가 높아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하며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他人資本 依存도가 높다.

② 에너지 多消費型 産業이다.

③ 국가기간산업으로 계속적인 가격통제와 가격결정의 硬直性이 있다.

④ 공장건설기간의 장기성과 需要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需給不均衡이 빈번히 야기된다.

⑤ 제품이 重量物이고 부피가 커서 運賃比重이 크고 생산공장의 입지편중으로 수송상 애로가 많다.

⑥ 연료(유연탄) 이외의 주·부원료는 거의 전량 국내조달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特性은 결국 시멘트산업이 장기적인 需給不均衡의 문제를 항시 내포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의 稼動率을 극대화하지 않는 한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쉽게 일깨워 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수출이 문제해결에 기여한바 크며 수출과 國內需要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의 特性으로 보아 시멘트는 內需用商品에 적합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업계전체의 안정적인 稼動率維持와 出荷量維持를 위하여 수출은 不可缺한 수단이며 따라서 업계의 수출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멘트수출은 전술한 바와 같이 東南亞지역과 中東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왔고 시멘트가 重量貨物인 만큼 선박운임의 비중 때문에 자연히 그 진출범위는 C&F 가격경쟁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받지 않을 수 없었으나 市場多邊化를 위한 노력끝에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수출가격은 78년도의 수출금지 시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上廻하였으나 79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 조치가 해제되면서 1년여만에 수출이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미 下落勢에 있었고 기존 해외시장의 만회 내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꾸준한 물량의 증가에 비하여 가격은 전반적으로 下落趨勢가 支配했다. 특히 82년 하반기부터 83년 초에 이르는 동안 수출국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급격한 시장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雪上加霜으로 기존 수입국들의 自給化推進이 본격화되면서 物量確保 및 市場維持가 더욱 힘겨워진 것 또한 사실이다.

잠시 주요수출시장의 現況을 살펴보면 수출시장이 어디에 있으며 과연 시멘트수출의 향후전망은 어떤지 점검해 보자.

### 1) 인도

77년 이래 연간 200만톤 정도를 輸入한 포장시멘트의 최대시장. 82년에 二重價格制를 실시하여 生産意慾을 높이고 전력난해소에 주력하여 83/84년도 총생산량을 약 2,800만톤까지 증가시켰다. 그간 主要供給國은 한국·북한·루마니아·불가리아 등.

특히 정책적으로 인도산 철광석을 가지고 동구권과 바터무역을 시도하면서 각종 輸入規制措置와 아울러 84년 초에는 루마니아 등 동구권 국가의 값싼 시멘트를 Rupee화로 결제하는 등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全無한 상태. 수입창구가 국영무역공사(S TC)로 단일화되었으나 자체 생산량증대 및 바터무역의 확대 등으로 수출전망은 매우 암담.

### 2) 파키스탄

인도와 더불어 연간 50만톤 정도를 수입하

는 포장시멘트의 主要輸入國으로 81년 7월 이래 한국이 최대공급국. 주로 사회주의국가와 바터교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82년 이후는 루마니아·터키·대만 등과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83년 하반기 이후 수출이 全無한 상태. 현재 연간 약 500만톤의 自體供給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85년 이내에 상당수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상대적인 수입감소 예상. 83년 하반기에 Floating Silo와 포장기를 설치한 加工船 2隻이 月 10만톤의 供給能力을 가지고 있어 벌크시멘트 市場化됨. 벌크가격은 일본·스페인인 C&F \$37 선을 제시했으며 대만은 최근 \$34 선을 제시한 것으로 예측됨.

### 3) 뱅글라데쉬

크링카와 포장시멘트의 주요수입국으로 연간 100만톤 소요량중 50만톤 정도를 무역공사의 입찰에 의하여 수입하고 10만톤 정도는 민간업체가 수입.

최근의 入札에 대만·인도네시아·북한·루마니아 등의 덤핑공세로 時勢는 C&F \$45.90 선으로 대폭 下落하였고 크링카도 83년 하반기에 C&F \$44 정도로 落札되었으나 현재는 FOB \$10 선으로 하락할 기세. 대만·인도네시아·터키 및 동구권 등의 경쟁으로 가격회복이 불가능함은 물론 시장전망도 불투명.

### 4) 기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82년 6월 P·T Semen Andalas 공장을 준공하는 등 생산시설의 확대가 계속되어 85년에는 1,60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推定되며. 84년도에는 약 70만톤을 수출할 목표로 있어 수출경쟁국으로 浮上. 일부 內陸輿地의 공급을 위한 수입이 예상되나 극소량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말레이시아는 Perak 등에 4개 이상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 생산량은 83년도의 350만톤에서 85년중에는 710만톤 규모에 이르러 거의 自給化단계에 진입.

홍콩과 싱가포르를 오랫동안 대량의 크링카를 수입하였는바 물량감소와 가격하락의 현상이 현

저하나 당분간 크링카수출은 가능할 듯.

### 5)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대의 수입국으로 연간 1,000만톤 이상을 수입하였으나 점차 차체공급능력이 증대하여 84년말에는 1,50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推定되어 수입량은 7~800만톤 규모로 예상되며 대부분 벌크시멘트를 長期契約에 의하여 수입. 스페인·일본·대만·동구권 국가들의 경쟁으로 가격은 하락세이나 앞으로 당분간은 최대의 벌크시멘트시장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6) 오만

과거 대량의 포장시멘트를 수입하였으나 83년말부터 국영 오만시멘트공장의 稼動 등으로 자가충족이 예상되고 수입관세 인상으로 우리의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근접한 아랍도후국으로부터 C&F \$47~49로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우리의 시장으로서는 상실된 상태.

### 7) 아랍도후국

생산량이 400만톤 규모에 이르고 있어 공급 과잉 상태이나 크링카생산 원가관제로 크링카를 수입하고 있어 향후 크링카수출은 가능할 것이나 인근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

### 8) 기타 중동지역

對 예멘 벌크수출은 가격이 下落(C&F \$40선)하고 물량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對바레인 크링카수출도 84년도에 중단된 상태. 한편 이란·이라크戰爭으로 쿠웨이트와 이라크에의 수출도 중단된 형편.

새로운 市場으로 아프리카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운임비중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며 82년부터 오랜 노력끝에 ASTM에 일치하는 2種시멘트를 미국에 수출한 것은刮目할 만한 성과.

이와 같이 시멘트 輸出市場은 빠른 속도로 변모되어가고 있는바 <表-3>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3. 輸出市場은 危機

시멘트 수출호황의 원동력이 된 中東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동구권과 스페인 등지의 제품이 中東은 물론 아시아로 밀려들어 인도 등 主力市場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각국의 공급능력 증대에 따른 自給化추세가 현저해지다 못해 신 巨경쟁국으로 탈바꿈되는 事例마저 늘고 있다.

한편 동구권국가 등 主要輸出國의 덤핑공세로 가격경쟁 또한 날로 치열하여져 시장은 엉망이 됐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업체는 자못 심각하다.

自律的이든 強制的이든 책임량을 할당하고 價格의 高下를 도외시하면 수출이 증대될 것이지만 原價개념을 완전히 무시한 수출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정부의 어떤 강력한 支援이 뒷받침되면 活路가 트일까.

현재 수출시장의 가격선은 바닥세로 떨어져 당분간 회복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수출물량의 안정적인 確保 내지 增大의 길을 업체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면서 수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最善을 다하고 있는지 自省해 본다.

第2의 中東市場이 있을 것인가.

연간 500만톤이라는 어제의 輸出實績을 어떤 방법으로 되찾을 것인가.

中共의 서울올림픽 참가記事와 점진적인 관계 개선조짐에 기대어 보고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란·이라크전쟁이 종식되었다는 머릿記事는 언제쯤 터질 것인지……

시멘트업체는 不況의 시기인 70년대말에 연료를 油類에서 石炭으로 대체하는 燃料代替事業을 自力으로 수행하여 자체경쟁력을 강화시키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센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은 없었지…….

예를 들어 83년도에 인도로부터 220만톤의

國別輸出實績(83年, 84年上半期)

<表-3>

(단위: 톤)

國別	區分	1983				1984(1~6월)			
		크림카	시멘트	벌크	計	크림카	시멘트	벌크	計
인도		—	1,129,968	—	1,129,968	—	14,249	—	14,249
파키스탄		—	247,080	—	247,080	—	—	—	—
방글라데쉬		100,900	240,900	—	341,800	—	18,509	—	18,509
네팔		—	84,616	—	84,616	—	61,332	—	61,332
인도네시아		—	190,955	—	190,955	—	—	—	—
말레이시아		89,572	121,100	—	210,672	83,056	41,312	—	124,368
브르네이		—	5,600	—	5,600	—	9,150	—	9,150
홍콩		266,871	2,800	—	269,671	26,500	—	—	26,500
싱가폴		603,688	21,735	3,416	628,839	353,089	—	—	353,089
파푸아뉴기니아		—	4,993	—	4,993	—	4,015	—	4,015
솔로몬		—	214	—	214	—	—	—	—
피지		—	4,750	—	4,750	—	—	—	—
버마		—	510	—	510	—	—	—	—
말다이크		—	3,000	—	3,000	—	—	—	—
사우디아라비아		—	15,300	1,030,674	1,045,974	—	—	583,795	583,795
아랍토후국		233,077	—	—	233,077	189,548	—	—	189,548
예멘		—	1,500	178,270	179,770	—	10,550	111,249	121,799
오만		—	23,300	—	23,300	—	—	—	—
바레인		156,250	—	—	156,250	34,675	—	—	34,675
요르단		—	4,700	—	4,700	—	—	—	—
소말리아		—	43,000	—	43,000	—	—	—	—
모리시어스		—	—	113,480	113,480	—	—	—	—
나이지리아		—	—	29,119	29,119	—	—	—	—
U. S. A.		—	3,990	96,984	100,974	—	2,722	197,996	200,718
수단		—	—	—	—	—	2,500	—	2,500
일본		—	—	—	—	—	7,600	—	7,600
計		1,450,358	2,150,011	1,451,943	5,052,312	686,868	171,939	893,040	1,751,847

註: 出荷基準

資料: 시멘트市場情報

철광석을 수입하고 中共으로부터도 상당량의 유연탄이 우회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입에 연계시킨 수출의 방법은 없을까.

시멘트 수출에 王道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겠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타개책이 업계와 종합무역상사 그리고 정부의 次元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時點이다. 目前의 단기적인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 대책에 대한 수출전략이 더욱 明確하게 기대되는 시멘트수출 端境期이다.

지혜와 힘을 모으자.

오랜 가뭄에 논바닥이 짹짹 갈라지듯 메마른 수출시장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애타계 하늘만 쳐다보는 무력한 농부가 될 수는 없다. ♣